



가을철 안전관리

이 희 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추석이 가까워오면서 조상의 묘소를 찾아 벌초를 하게 된다. 이때 벌에 쏘여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뱀에 물려 고생하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예초기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거나 발목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보게되는데 이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보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암모니아수, 칼라민로션 등을 바르고 가능하면 얼음찜질로 쏘인 부위의 혈관을 수축 시킴으로써 독액이 흡수되는 것을 줄여줘야 한다.

비상약품이 없을 경우엔 우유를 바르는 것도 상처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벌독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온몸 두드러기와 호흡곤란 등

의 증상을 보이는 『과민성 쇼크』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에피네프린 주사약을 휴대했다가 허벅지 부위에 주사한 후, 기도(숨길)를 충분히 열어주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벌은 향수를 뿌린 사람이나 반짝이는 귀고리나 목걸이를 한 사람을 추격하는 경향이 있어 야외에 나갈 때는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요란한 색깔의 옷을 피하는 것도 피해 예방법이 된다.

◆ 뱀에 물렸을 때



환자를 눕히고 안정을 시킨다.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흥분하거나 걷거나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진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아래쪽에 뒤야 하며 냉찜질로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시간을 더디게 한다.

팔을 물린 경우 반지와 시계를 빼는 게 좋다. 물린 부위를 고정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일차 응급처치자는 뱀에 의한 교상에 어떠한 흡입도 시도해서는 안된다.

전문 응급처치자가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물린 지 30분이 지난 후에는 독을 빨아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빠른 시간 내 상처의 독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게 좋다.

독사에 물린 환자에게 먹을 것을 쥐서는 안되며 특히, 음주는 절대 금하여야 하며 술은 독을 빨리 퍼지게 하므로 치명적이다.

◆ 예초기, 낫 안전사고



예초기나 낫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 흐르는 물이나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 모래나 흙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독약을 바른 뒤 깨끗

한 수건이나 가제로 감싼 채 병원へ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처가 작을 경우는 벌어진 피부를 살짝 오므린 다음 반창고를 이용하여 붙여주면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다.

상처에 된장, 담뱃가루 등을 바르는 행위는 금물이며 현장에서는 보통 연고를 바르거나 항생제 가루를 뿌리는 것 보다 소독약을 바르고 씻어내는 것이 좋다.

출혈이 심할 경우 출혈 부위에 깨끗한 수건을 대고 직접 압박하는 것이 좋으며 상처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약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절단된 경우엔 지혈을 한 뒤, 절단된 손, 발가락 마디를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마른 가제나 수건으로 잘린 마디를 싸서 얼음이 담긴 비닐봉지에 넣은 뒤 병원으로 가져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

